

“최저임금 1만원 목표 달성 어려워...공약 못지켜 사과”

文대통령 “인상 폭, 경제가 감당해내는 것 중요...노사정 노력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여인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최저임금 위원회의 결정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이룬다는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결과적으로 대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의 모 두 발언을 통해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렇게 사과했다.

이어 “최저임금위는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고용 상황,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사정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처한 현실을 고려하고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어렵게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최저임금위는 작년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이어 올해에도 두자릿수의 인상을 결정함으로써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의지를 이어왔다”며 “정부는 가능한 조기에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그러나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가 기계적 목표일 수는 없으며 정부의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높여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동시에 가계 소득을 높여 내수를 살리고 경제를 성장시켜 일자리의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따라서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올해와 내년에 이어져 이뤄지는 최저임금의 인상 폭을 우리 경제가 감당해내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노사정 모든 경제 주체들이 함께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영이 타격받고 고용이 감소하지 않도록 일자리 안정자금뿐 아니라 상가임대차보호, 합리적인 카드 수수료와 가맹점 보호 등 조속한 후속 보완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또한 근로장려세제 대폭 확대 등 저임금 노동자와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여주는 보완 대책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경제와 민생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사정의 활발한 소통과 협력을 부탁드린다”며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협조도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뉴시스

文대통령 지지율 4주 연속 하락, 68.1%

최저임금·증세관련 정부정책 여파...정의당, 11.6% 최고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4주 연속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 대통령의 하락세와 궤를 같이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도 4주 연속 하락을 면치 못했다.

이에 반해 7주 연속 상승한 정의당은 3주 연속으로 최고치를 경신하며 10%대 지지율을 유지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외파로 지난 9~13일 닷새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6일 발표한 7월 2주차 주간집계(95% 신뢰수준·표본오차 ±2.0%p·응답률 3.8%)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고 답

한 부정평가는 26.2%(매우 잘못 13.9%·잘못하는 편 12.3%)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5.7%로 집계됐다.

4주 연속 내림세를 면치 못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 7월 1주차 주간집계(69.3%)와 비교해 1.2%p 더 떨어졌다.

리얼미터는 “이러한 하락세는 지난 한 주 내내 이어졌던 내년도 최저임금 논란, ‘고용 감소 지속’ 보도 확대 등 경제악화에 대한 불안심리가 계속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최근 최저임금산입범위·탄력근로제·증세 관련 정부정책에 대한 진보성향 유권자들의 부정적

여론과 지난주 초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 성과에 대한 부정적 보도 역시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당지지율의 경우 7주 연속 상승가도를 달리고 있는 정의당이 1.2%p 오른 11.6%를 기록, 자유한국당(17%) 뒤를 바짝 쫓았다. 3주 연속 최고치 기록을 경신한 정의당은 2주 연속 10%대를 이어가며 한국당과의 격차를 5.4%p로 좁혔다.

리얼미터는 “최저임금산입범위·탄력근로제·증세 등 정부정책의 개혁의지 후퇴 논란 맞물리면서 민주당 지지층 일부 충성도가 약화됐고, 국회 특수활동비 등 쟁점현안에 대한 대응이 여론의 호평 받은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시스

문희상 의장-여야 원내대표 최초 회동... ‘통합·협치’ 당부

문희상 “여야 없고 진보보수없이 힘 합쳐야”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4개 교섭단체 회동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장병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문희상 국회의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문희상 국회의장은 16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의 첫 주례 회동을 갖고 20대 후반기 국회의 통합, 협치를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다만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자당의 의원총회로 인해 잠시 둘러 인사만 나눈 뒤 회동장을 떠났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원내대표들을 만난 뒤 “제가

20대 후반기 국회에 관해 약속하고 일했던 것은 국민의 신뢰를 받은 통합의 국회”라며 “힘을 합쳐 함께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특히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큰 두 가지 시대정신 중 한 가지는 촛불혁명에 의한 완벽한, 새로운, 든든한 대한민국 만드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한반도 평화라는 격려에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여도 없고 야도 없고 진보도 없고 보수도 없이 다 힘을 합쳐서 세계에 우뚝 서는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1년 차는 청와대가 전력투구해서 이만큼 했으니 제도적으로 완성해야 하는 것은 국회 몫”이라며 “여기에 계신 원내대표들이 소명을 갖고 앞장서야 한다. 그것이 국민이 원하는 국회상일 것”이라고 요구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회가 앞에서 협치하길 기대하고, 민생문제를 해결하길 기대하고 똑같은 생각을 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그렇게 행할길 바란다. 앞으로 가능한 한 전반기 국회에서 정례회동의 전통을 이어갔으면 한다. 이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상의를 거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회동 초반에 인사만 한 뒤 자리를 비운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뒤늦게 다시 합류해 “상견례 시간을 맞추려 했는데 너무 중요한 의원총회다 늦어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부터 당 비상대책위원장 선출 등 혁신 방안 논의를 위한 의원 총회를 진행했다.

김 원내대표가 끝난 무렵에서야 합류하는 바람에 이날 회동에서는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법안 관련 논의는 하지 못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평화와 정의의 “20대 후반기 국회서 개혁선도 역할 주도해야”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의원총회에서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 조배숙 대표, 장병완 원내대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이정미 대표.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이 20대 후반기 국회에서 개혁인법을 선도하는 역할을 맡아야한다고 강조했다.

평화와 정의는 16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러한 목소리를 높였다.

조배숙 정의당 대표는 “어려워진 민생을 위해 개혁이 반드시 필요한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잠자미로 국회에서 개혁인법을 통과시키기 어렵겠다”며 “평화와 정의의 정치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자주 만나 아이디어를 모으고 서로 믿고 실천하면 좋겠다”고 말

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상반기 동안은 국회가 멈추다시피 하면서 허송세월을 보냈다. 국민에게 많은 실망을 안겼다”며 “후반기 국회는 전반기보다 두 배 더 많이 일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의 주도자 역할을 국회가 진행해야하고 민생을 살피는 국회가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평화당과 평화와 정의 원내대표인 장병완 의원은 국민이 원하는 정치개혁을 제대로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장 원내대표는 “국회에 전례 없는 4개 교섭단체 간 협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평화와 정의의 요구대로 제70주년 제헌절 전에 국회가 정상화 돼 그나마 다행”이라며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의정단 선출, 상임위원장장 배분에 있어 양당 중심이었던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야호센터는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야호의 꿈

-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062-960-6980
광산구 시암로 340번안길 5

광산구
Drawing 이호동